



고덕지구초 주, 가정, 학교 기독교대백서

목도	목도 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찬송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가 563장)	다같이
기도		가족중
성경봉독	시편 23편	가족중
말씀나눔	우리 가정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사회자
가족나눔	감사제목 나누기 / 기도제목 나누기	다같이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가 569장)	다같이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1-2]



우리 가정의 목자되시는 하나님

시편 23편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합니
다. 목자는 양을 먹이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며, 위험에서 보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특히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지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추석에 우리 가족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